-해외 교육기관 견학 및 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9년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연수목적 ····· 1

Ⅱ. 연수개요 ····· 2

Ⅲ. 방문지 일반현황 ····· 4

Ⅳ. 국외연수 활동(기관 방문) ····· 13

1. Nordberg Skole(노르베르그 중학교) ····· 13

2. Sofia Skola(소피아 종합학교) ····· 18

3. Tuusula City(투슬라 시청) ····· 24

Ⅴ. 국외연수 활동(전문가 초청 간담) ····· 31

1. Hanna Flood, President of ANSA(노르웨이) ····· 31

2. 스웨덴 한글학교 신미성 이사장(스웨덴) ····· 35

Ⅵ. 국외연수 활동(시설견학) ····· 39

1. 헬싱키 시립박물관, 어린이마을 ····· 39

Ⅶ. 총 평(연수 결과 정책 추진 방향) ····· 42

Ⅷ. 연수후기 ····· 43

Ⅸ. 참고자료 ····· 46

1. 연수관련 5분 자유발언(김종식 의원) ····· 46

2. 연수관련 언론보도 내용 ····· 49

-해외 교육분야 사례 수집 및 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9년 교육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교육·문화 현장 견학을 통하여 전북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정책 발전적 전략 마련

◆ 선진 현장 우수사례 체험 기회 제공으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 업무전문성 및 역량 강화

I 연수 목적

- **노르웨이 종합 지원 교육복지 사례** 수집으로 **전북만의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방안 마련**을 통한 도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체제 구축**
- 단위 학교부터 시작되는 **스웨덴 교육자치 현황**을 확인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내는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 **무경쟁, 평등 교육**으로 **학생 간 학업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는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
- 어린이들이 **역사에 대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헬싱키 시립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지역 역사문화와 연계한 **교육박물관 건립 방안 모색**

Ⅱ 연수개요

- 일　　정 : 2019. 6. 20.(목) ~ 6. 28.(금) / 7박 9일
- 연 수 국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연수대상 : 10명(의원 7명, 전문위원실 3명)
- 소요예산 : 44,387천원(연수여비 30,367천원, 자부담 14,020천원)
- 연수 참가자 현황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계		10명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7명)	위 원 장	최 ○ ○
	위　　원	김 ○ ○
	위　　원	김 ○ ○
	위　　원	최 ○ ○
	위　　원	김 ○ ○
	위　　원	박 ○ ○
	위　　원	진 ○ ○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3명)	주 무 관	김 ○ ○
	주 무 관	소 ○ ○
	주 무 관	김 ○ ○

연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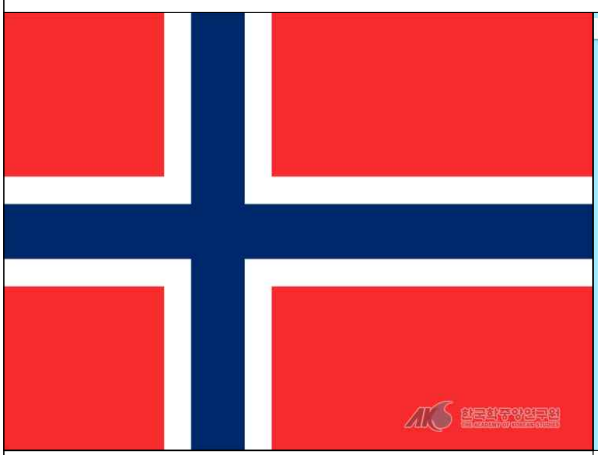
일 자	방문국가	주 요 일 정	비고
1일 6/20(목)	전주 → 인천 → 뮌헨 → 오슬로	○ 전주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인천 출발 / 뮌헨 국제공항 도착(경유지) ○ 뮌헨 출발 / 오슬로 국제공항 도착 ○ (전문가 초청 간담) – Hanna Flood, President of ANSA	
2일 6/21(금)	오슬로 → 레르달	○ (공식 방문) – **Nordberg Skole(노르베르그 중학교) 방문** ○ 오슬로 → 레르달 이동	
3일 6/22(토)	레드달 → 만헬러 → 플롬 → 게일로	○ **노르웨이 자연, 역사 문화 탐방** ○ 레르달 → 게일로 이동	
4일 6/23(일)	게일로 → 오슬로 → 칼스타드	○ 게일로 → 칼스타드 이동(8시간)	
5일 6/24(월)	칼스타드 → 스톡홀름	○ (공식 방문) – **소피아 학교 방문**	
6일 6/25(화)	스톡홀름 → 헬싱키	○ (전문가 초청 간담) – 스웨덴 한글학교 신미성 이사장 ○ 스톡홀름항 출발 / 헬싱키 향발	
7일 6/26(수)	헬싱키	○ (공식 방문) – Tuusula City Hall(투슬라 시청)	
8일 6/27(목)	헬싱키 → 프랑크푸르트 → 인천	○ (시설 견학) – **헬싱키 시립 박물관(어린이 마을)** ○ 헬싱키 공항 도착 / 프랑크푸르트(경유)	
9일 6/28(금)	인천 → 전주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인천 출발 / 전주 도착 후 해산	

Ⅲ 방문지 일반 현황

1 노르웨이

❑ 개 요

· 위 치 :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
· 수 도 : 오슬로(Oslo)
· 인 구 : 약 5,400,916명(2019년 기준)
· 면 적 : 약 38,517,800ha
· 주요민족 : 노르웨이인(99%), Sami족(1%)
· 언 어 : 노르웨이어
· 종 교 : 루터 복음교
· 화 폐 : 노르웨이 크로네(1NOK = 133.25원)
· GDP : 4,270억$/세계 31위(2019년 기준)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형태
· 의회제도 : 임기 4년 단원제(165석)



< 노르웨이 국기 >



< 노르웨이 지도 >

교육제도

1. 노르웨이 교육 제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간이 1년 더 긴 것을 제외하고 기본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며, 학교명은 보통 위치한 지역 이름을 따라 정해지며 학생들은 거주지역 근처의 2~3개 학교에 지원하여 추첨제를 통해 학교를 배정 받게 됨. 1997년의 교육법 개정 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10년의 의무교육 과정은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과정과 8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중등학교 과정으로 나누어짐

2. 학제 및 교과 과정

가. 초등교육(Barneskole)

보통 6세에서 12세의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받는데, 6학년 제도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르웨이의 초등학교는 7학년제임. 1학년 학생들은 교과목 수업보다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기본적인 모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교육을 받음.

2학년부터는 6가지 과목(수학, 영어, 과학, 종교, 예술, 음악)을 배우는데, 여기에 5학년이 되면 지리, 역사, 사회 과목이 추가됨. 초등학생들은 공식적인 성적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선생님의 코멘트나 비공식적인 성적을 통해서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상대평가를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나. 중등교육(Ungdomsskole)

13세부터 16세까지 3년간의 중등교육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을 환산할 수 있는 시기로 노르웨이 학생들에게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중학생들에게는 선택과목이 주어지는데 보통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영국이나 노르웨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움. 2006년 전에는 언어가 아닌 다른 실용적인 기술들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06년 여름에 패지되었음 기술과목을 폐지하고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어서인지 2009년 OECD 세계학력평가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1999년 이후 출생자들은 2개의 선택과목(외국어 과목 1개와 기술과목 1개)을 선택할 수 있음

다. 고등교육(Videregående skole)

16세부터 19세까지의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이지만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 93%의 고등학교가 공립이지만 다양한 국제 커리큘럼의 국제학교들도 운영 중으로 노르웨이의 학교 7%가 사립학교임. 대부분의 노르웨이 학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교육혜택이 평등하게 배분되어 학교간의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없는 교육이 가능함

고등교육은 2006년에 일어난 교육개혁(Kunnskapsløftet)에 의해 학업교육(general studies)과 직업교육(vocational studies)으로 나뉘었으며, IT과목이 필수과목이 되었음. 학업교육 학생들은 학업적 목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교과목을 공부하지만 직업교육의 학생들은 특정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은 4년이 소요되는데 보통 2년은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다음 2년은 현장경험을 쌓는 방식임 대부분의 북유럽 교육은 직업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

2 스웨덴

❑ 개 요

· 위 치 :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
· 수 도 : 스톡홀름
· 인 구 : 약 10,053,135명(2019년 기준)
· 면 적 : 약 44,743,000ha
· 주요민족 : 스웨덴인(95%), 핀란드인(3%)
· 언 어 : 스웨덴어
· 종 교 : 복음 루터교(87%), 로마가톨릭
· 화 폐 : 노르웨이 크로나(1SEK = 123.76원)
· GDP : 5,471억$/세계 23위(2019년 기준)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혼합) 형태
· 의회제도 : 임기 3년 단원제(349석)



< 스웨덴 국기 >



< 스웨덴 지도 >

교육제도

1. 스웨덴 교육 제도

최고의 복지를 이룩한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데 이는 철저히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스웨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은 보통 오후 2시경에 끝나는데 이후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취미생활 위주로 보내며 사교육 없이도 최고의 질 좋은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 스웨덴의 교육은 유치원 과정,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2. 학제 및 교과 과정

가. 유치원 과정

스웨덴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1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과정임

나. 초중등교육(의무교육과정)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모든 공교육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됨. 기초교육은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학습력 향상을 지향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이 통합된 형태의 유년학교(forskola)가 있으며, 6세가 되면 1년간 의무 취학전 교육을 실시함. 스웨덴 초등학교의 9년 통합형 학제는 1950년대에 실험되어 정착했는데, 7세에서 16세까지 9년간은 의무교육과정으로 각각 3년씩 초・중・고급 과정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종합학교가 의무교육기관 역할을 맡고 있음. 초급 및 중급 과정은 담임교사가 주로 가르치며, 고급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이 늘어남

다. 고등교육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무료이고 고등학교가 성인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전의 일반고등학교(gymnasium), 실업학교(fackskola), 직업학교(yrkesskola)가 하나로 통일된 교육과정 아래 통합한 통합고등학교(Gymnasieskolan) 체제로 바뀌었는데, 통합고교의 교육과정은 인문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3개 분야로 크게 나뉘고 이후 23개 계열로 세분화됨.

통합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계열 외에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직업교육을 수행하는데, 연령 및 학력제한이 없음. 통합고등학교 정원의 25%를 성인들에게 할당하고 있어 성인교육의 일부를 통합고교에서 맡고 있음

라. 대학교육

스웨덴에는 총 61개의 대학교 교육기관 있으며,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비EU권 유학생들은 연간 1,200만원 정도의 학비를 부담해야 함. 입시제도는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며, 정규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25세 이상, 직업경력 4년 이상이면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직장인을 위해 야간 강의도 있음. 대학은 3년 과정, 석사는 2년 과정이 대부분으로, 박사의 경우 직업 개념이라서 소정의 월급이 나오는 대신 강의를 해야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음

3 핀란드

❑ 개 요

· 위 치 : 유럽대륙의 서쪽 북대서양

· 수 도 : 헬싱키

· 인 구 : 약 5,561,389명(2019년 기준)

· 면 적 : 약 33,844,600ha

· 주요민족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러시아인

· 언 어 : 스웨덴어, 핀란드어

· 종 교 : 핀란드 루터교(83%), 그리스정교(1%), 그리스도교

· 화 폐 : 유로(1EUR = 1,316.95원)

· GDP : 2,765억$/세계 44위(2019년 기준)

· 정치체제 : 공화제

· 의회제도 : 임기 4년 단원제(200석)



< 핀란드 국기 >



< 핀란드 지도 >

❑ 교육제도

1. 핀란드 교육 제도

핀란드의 교육은 '평등주의 노르딕 제도(egalitarian Nordic system)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1 ~ 9학년까지로 의무 과정을 마친 후 10학년은 선택함

고등학교는 3년제의 일반 고등학교와 2년제 ~ 3년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부터 대학교육, 심지어 석・박사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하고 있음

2. 학제 및 교과 과정

가. 초등 교육

초등 교육 학제는 9년제를 따르는 의무교육으로,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에 진학을 하며, 홈스쿨링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드문 편으로 7살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의 연령이 되는 15세나 16세 때 끝나게 됨. 사립학교는 거의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사립학교의 설립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2차 교육(secondary education)

핀란드의 두 번째 학제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며 고등학교(secondary education)에서는 직업교육과 학문교육, 두 개의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실업계(Vocational school)학교는 지자체에 의해서 운영되며, 간혹 사립도 존재함. 취업을 대비하여 직업 교육이나 직업능력을 배양하며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

지며, 실업고 졸업장은 '전문대학 입학' 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 대학 입학을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실시하는데, 인문계(Upper secondary school)학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며 대학 과정을 준비하게 함.

다.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으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임.

신입생을 선발 시, 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국가 대입자격시험과 입학시험이 이용되며, 종합 대학(university)의 초점은 연구이고, 대학은 이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모든 핀란드의 종합대학은 국가에 의해 운영된며, 학사 학위 취득에는 보통 3~4년이 소요됨 전문대학(polytechnics, AMK/YH)은 실용적인 기술에 초점을 두며, 프로그램에 따라서 3.5 ~ 4.5년의 학위 취득 시간이 걸리며, 졸업 전까지 핵심, 전문직교육, 선택과목, 졸업 작품 등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후에는 더 높은 단계의 교육, 실무직업 기술을 익힐 수 있음

라. 직업교육

현장 실무자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으로 직업, 기술학교에는 크게 8개의 교육 분야가 있으며, 100여개의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50여개 이상의 기술자격취득 과정이 있음.

모두 3년 과정이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현장실습으로 진행하며, 직업교육, 기술교육은 교내에서, 혹은 도제제도를 통해 이수함

Ⅳ 국외 연수 활동(기관방문)

1 Nordberg Skole(노르베르그 중학교) 방문

▷ 방문일시 : 2019. 6. 21.(금) 10:00 ~ 12:00
▷ 면 담 자 : 노르베르그 중학교 교장 등 관계자 2명
▷ 주　　소 : Sognsveien 210b, 0863 Oslo
▷ 홈페이지 : https://www.nordberg.gs.oslo.no

□ 방문 목적

- 노르웨이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질적 효과를 직접 체감하여 전라북도만의 특화되고 **학생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 기관 개요

- 노르베르그 중학교는 오슬로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학부모들의 경제력과 고등교육 이수 정도가 높은 학교임
- 8학년(13세)부터 10학년(16세)까지의 중등과정 운영 학교임
- 학년당 7학급씩 모두 21학급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가량으로 총 600명 정도 규모임
- 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 인식하여 무상

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로 교과서, 수업료 뿐만 아니라 교통비, 체험활동비 등 일체의 교육활동 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됨

- 시설면에서는 학교 부지가 넓어 체육관 및 식당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실습실(미술실, 조리실, 목공실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 작업 공간이 크고 각종 작업도구 재료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규모나 시설 면에 우리나라 학교에 비해 부족함이 없음



[학교 시설 현황]



[학교 시설 현황]

□ 연수 내용

- 중학교의 학기는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이고 일과는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수업이 끝나며,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은 없고 운동하기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축구, 테니스, 핸드볼 등을 하고, 미술이나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등을 가르치는 예술학교가 있고 조금의 수업료를 내면 방과 후에 언제든지 배울 수 있음

- 보건교사, 상담교사 및 피지컬테라피 관련 교사 등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보건·상담 및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주며,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노르웨이 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2장 제15조 초·중등학교 공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에 따라, 교과서(노트북)를 포함한 수업교재비, 학교 교통비, 체험활동 및 교육 외부활동 등에 대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학교 급식은 개인 도시락을 이용 중임

- 노르웨이의 복지 정책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교육복지 해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해서도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답변

-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다른 혜택이 있는지?

⇒ 정부에서 한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각 가정에 한달에 약 20 ~ 30만원 가량 지원을 하고 있음

- 방과후 활동 중 SFO라는 것은 사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 SFO는 노르웨이 학교 저학년이 이용하는 학교 밖의 방과후 활동을 말하는데, 스포츠클럽이나 예술학교 등이 있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국영수 과목이나 과외처럼 사교육이라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급식이 무상인데, 노르웨이의 경우는?

⇒ 노르웨이 교육복지에서 급식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르웨이가 산악지대이다 보니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 대체적으로 개별 점심을 준비해 오고 있음. 다만 최근 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 제공을 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시사점

학생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 최근 전북에서는 무상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복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는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만 국한하여 접근하지 않고, 학생의 통학과 거주, 안전과 보호, 상담과 교육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도내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분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투자를 통한 교육분야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령인구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교육복지를 하나의 종합 서비스로 인식하여 전북 학생들에게 타·시도와 다른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련사진



[학교 배치도]



[체육관 내부 시설]



[학교 외부 현황]



[교내 활동 모습]



[체육 수업 참관]



[방문 단체사진]

2 Sofia Skola(소피아 종합학교) 방문

▷ 방문일시 : 2019. 6. 24.(월) 14:00 ~ 16:00
▷ 면 담 자 : 학교장 Karin Ekstrand 등 관계자 2명
▷ 주　　소 : Skanegatan 117, 116 35 stockholm
▷ 홈페이지 : https://sofiaskola.stockholm.se/

□ 방문 목적

- 단위 학교부터 교육방법, 예산배분과 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지방분권화 혹은 교육자치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의 교육자치 시스템을 견학하여, 전라북도 학교자치 및 지방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관 개요

- 소피아 종합학교는 1910년 개교한 백 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개교 당시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 건물이였으며, 당시 국왕인 구스타프 5세와 빅토리아 왕비가 개교식에 직접 참석함
- 현재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약 9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
- 소피아학교의 교육목표는 자립과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교육열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적이지 않음

- 학교의 장은 지방정부가 채용하고 교사나 교육경력이 없어도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인사권과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음
- 교육과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교사가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수 내용

- 스웨덴 교육은 개방성, 다양성, 창의성 바탕으로 하며, 학생 개인의 가치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있음
- 학교장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책임,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교사들은 수시로 자신의 성과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음
- 스웨덴 학교에는 직업상담교사가 있는데, 상담교사로서 역할 만이 아니라 1학년~9학년까지 모두 편성된 교과목의 수업을 하는데 저학년에서는 직업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고학년에서는 노동시장의 여건, 직업 진로의 내용에 대해 가르치며, 하루에 8~10명의 학생의 진로직업 상담이 이루어짐
- 스웨덴 교육 중 한 가지 특징은 프라오(PRAO)라는 2주일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회경험을 해야 하는 직업체험 교육과정으로, 학교 재량으로 8, 9학년 가을 학기에 PRAO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할 현장을 찾고 현장경험을 한 후 해당

시설 책임자로부터 학생에 대한 소견서(평가)를 받는 형태로, 교사가 될 꿈을 가진 학생이면 유치원 보조교사로, 요리사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맥도날드 주방보조 등으로 일할 기회를 부여함

- 학생들에게 사회경험과 적성을 찾아주자는 의도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관심분야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지도하며,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직업상담교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PRAO 과정을 모든 과목에 접목시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질의답변

- 스웨덴의 교육열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지?

⇒ 소피아 학교의 교육목표는 자립과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교육열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한국과 같이 경쟁적이지 않음.

- 학교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학교장은 학교의 예산권, 인사권 및 징계권 등 학교 대표로서의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학교장 스스로 개인의 인격에 부여한 권한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쓰지 않고 있음. 교장이란 자리는 학교교육활동을 총괄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학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윤활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함. 학교 운영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피고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들의 수업 연구를 지원하며,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라고 봄

- 교사의 평가 및 성과급의 차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자체 설문 조사 및 다면 평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교장이 최종 평가함.

-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시행 중인데, 학교 자치의 선구적인 스웨덴에서 전북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학교 자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학교 내 모든 의사 결정시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의라고 생각함. 학교는 학교장 또는 교사만의 공간이 아니고,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모두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임. 또한 지방정부나 외부에서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시사점

- **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스웨덴은 학교의 예산권, 인사권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까지도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통한 궁극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 학교 자치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교육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

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음

- 실질적인 학교 자치를 위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방식 개선 등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학교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 및 마을공동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 다양한 부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관련사진



[소피아학교 경관]



[학교장 환담]



[학교 유치원 시설 견학]



[학교 도서관 시설 견학]



[학교 도서관 견학]



[방문 단체사진]

3 Tuusula City(투슬라 시청)

▷ 방문일시 : 2019. 6. 26.(수) 10:00 ~ 12:00
▷ 면 담 자 : Jussi Salonen 부시장 및 관계자 1명
▷ 주　　소 : Hyryläntie 16,PL60 ,04301 Tuusula
▷ 홈페이지 : https://www.tuusula.fi/

□ 방문 목적

- 학생 간 무경쟁, 평등 교육, 학습 더딤 학생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경쟁력 세계 1위'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전북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관 개요

- 투슬라시는 핀란드의 문화적인 중심지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호수가 있어 수돗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도시임
- 투슬라시에는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3교 및 고등학교 1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음

- 초등학교(primary school): 14교(1~6학년)
- 중학교(secondary school): 2교(7~9학년)
- 초중등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3교(1~9학년)
- 상위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1교(김나지움)

- 핀란드의 2016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투슬라 시에서는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등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학생의 학업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
  - 자연환경에서 함께 지식의 나누고 배움.
  -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에서 안내자로 변화
  - 프로젝트형 수업
  - 미래도전에 대비하는 학생: 배움, 사고력, 포용력, 개인 능력을 함양

□ 연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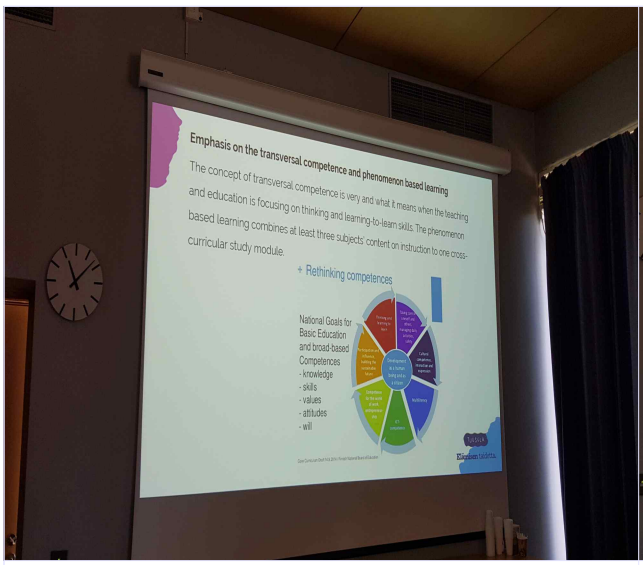
- 2016년 핀란드의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학, 역사, 미술 등 개별적인 과목 학습이 아닌, 한 가지 수업 목표를 정하면 목표에 대한 결과를 모든 과목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투슬라시 교육청에서는 주정부의 교육과정을 프레임으로 하되, 그에 대한 교육방법 및 평가는 시교육청, 교장 및 교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모든 교육은 융합 교육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교사가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음
  - 교사들이 상호 연구하여 개발한 자체 교육과정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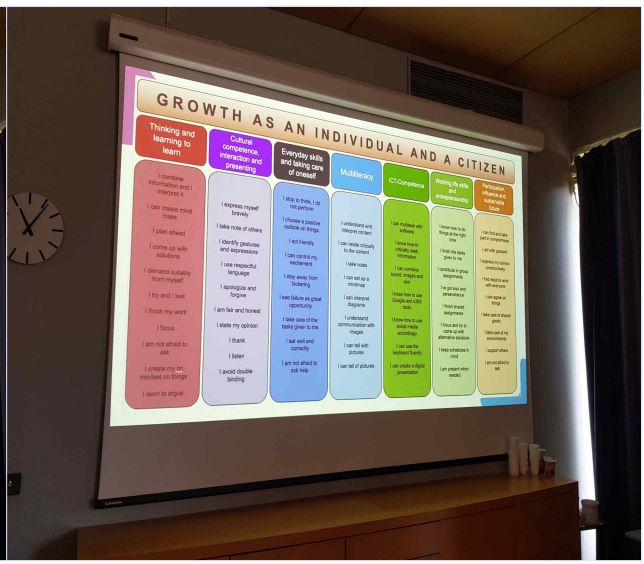
- 융합 교육과정의 실제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방식 개선 및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사 간 튜터 티쳐(TUtor teachers and co-teaching)제도를 운영하여 교사 개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의 상호 교육 및 협력 체계를 운영 중임

- 융합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자체 교육방법 및 평가 방식 개발 등에서도 모든 평가 방식은 경쟁에 따른 상대평가가 아닌 달성도에 의해 평가되는 절대 평가 방식이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 학력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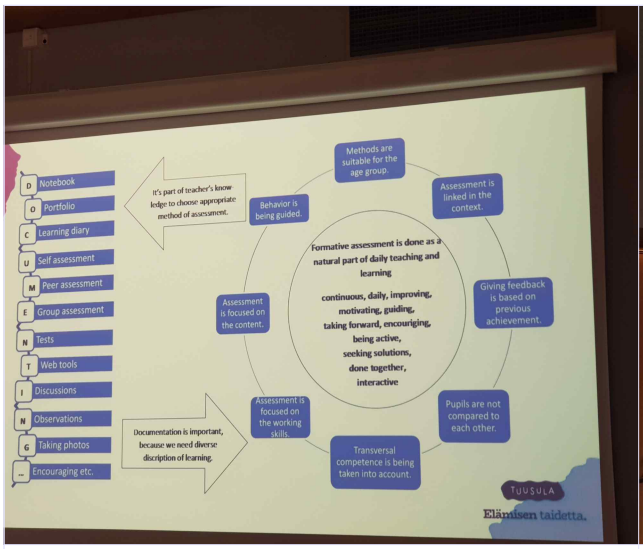
- 진학이나 직업교육 등을 선택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족한 학생에 대해 10학년 제도를 운영하여, 학습 부진이나 기초학력 저하 학생을 최대한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력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준의 평등에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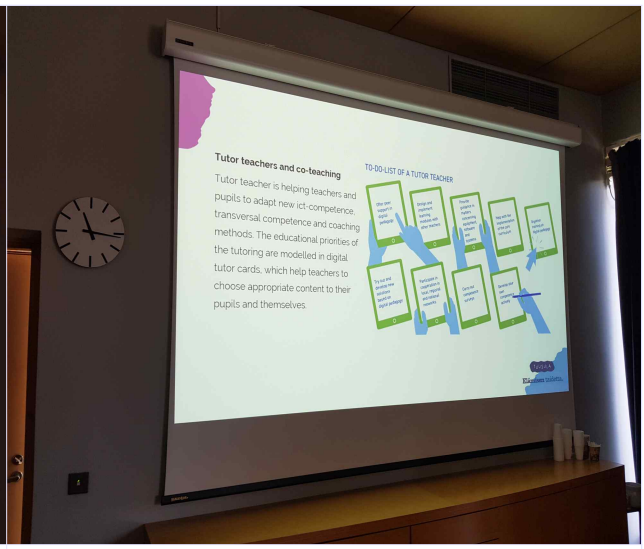
[7가지 핵심역량 교육과정]



[핵심역량 교육과정 세부내용 소개]



[자체 교육과정 평가 방법]



[튜터-티처 제도]

□ 질의답변

- 융합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학교 수업 적용 사례는?

⇒ 투슬라시 인근에 위치한 '껠라꼬스키라는 마을 알아보기' 의 주제를 정하면, 마을에 대한 지리적 특성(사회), 마을 면적 구하기(수학), 마을 역사 유래 찾기(역사), 마을 풍경 그리기(미술) 등 마을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있음

- 융합 교육과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교사들은 튜터 티쳐 제도를 통하여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 교수법을 공유하고 있고, 학교 및 지방정부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다문화(이주자)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이주자 자녀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취학 전 1년간의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학생의 경우에도 학업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3단계의 학생 지원시스템(일반, 강화, 특별교육)을 갖추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융합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평가 시 교사의 주관적 개입과 학생의 학력수준 저하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 평가는 형성적 평가와 종합적 평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형성적 평가는 학생과 교사 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며, 종합적 평가는 교육과정에 표준화된 평가로써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학력수준의 저하 부분은 교육의 가장 기본은 기초학력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시사점

- 핀란드는 2016년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융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의 교육과정 개편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나, 정작 입시 위주의 교육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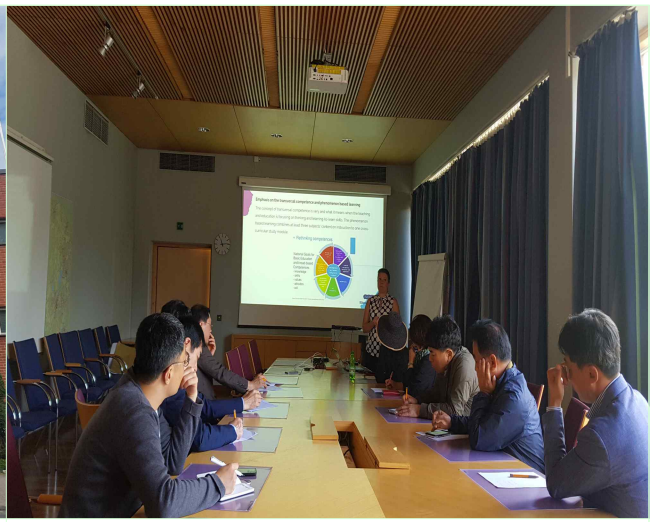
  - 현대사회의 급속한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도 융합교육과정 등 다양한 창의적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나, 핀란드의 사례처럼 교육방식의 개선만이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시하고, 학력 차이를 무시하는 평등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창의적 교육방식, 기초학력 향상 방안 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며, 핀란드의 경우 교사에 대한 우대가 높고, 교사를 신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고 있는 바, 우리 전북 교육에서도 교사로서의 책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 부여, 수업권 보장 및 교원 업무경감 등의 방안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사진



[투슬라 시청 경관]



[투슬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청취]



[투슬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청취]



[투슬라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질의답변]



[투슬라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질의답변]



[방문 단체사진]

V 국외 연수 활동(전문가 초청 간담)

1 노르웨이 교육전문가 초청 간담

▷ 간담일시 : 2019. 6. 20.(수) 20:00 ~ 21:00
▷ 강 연 자 : President of ANSA, Hanna Flood
▷ 간담장소 : 노르웨이 Quality hotel 33 지하1층 협의실

□ 간담 주제

- 노르웨이 교육방식의 글로벌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 노르웨이의 학교교육은 독립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식으로 교과서를 통해 암기하는 교육방식보다 사회참여를 통해 성숙해지는 인간관계를 강조함.

  - 노르웨이의 교육과정이 노르웨이 학생들의 글로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함.

□ 교육전문가 소개

- 강사명 : Hanna Flood

- 직 위 : 노르웨이 교육부 산하 자율기구 ANSA 선출직 의장

  - ANSA : 노르웨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해외 유학을 떠나는 자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유학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유학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수립하는 곳

□ 연수 내용

- ANSA(Association of Norwegian Students Abroad)는 해외 노르웨이 학생 협회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노르웨이 학생들의 교육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현재 2백만명 이상의 노르웨이 학생들이 90개국 이상에서 유학하고 있음
  - ANSA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자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해외 유학정책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르웨이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에게도 유학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학비 인상이나, 타국에서의 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외출장비 등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음
- 노르웨이의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참여를 통해 성숙해가는 인간관계 형성과 평등이라는 가치관 함양과 실현에 있음
-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속에 모든 국민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교육은 일체 하지 않고 사립학교 비중도 극히 일부분임
- 교육은 경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1~4학년까지는 유치원 교육의 연장으로 과목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실시하고, 5학년부터 과목을 구분하여 교육하지만 성적은 따로 부여하지 않음
- 교육에 대해 강요하지는 않으나, 일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실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조기 입학이 가능함

- 우리나라 같은 수능시험 제도가 없어 모두 내신으로만 입학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 평소 학교 수업에 소홀하지 않음. 그러나, 한국처럼 모두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지는 않고, 실제 대학 진학률은 15% 정도로 알고 있음

□ 질의답변

- 우리나라처럼 학원 같은 곳도 운영하고 있는가?

⇒ 노르웨이는 경쟁 위주 교육이 아니고, 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원은 없으나, 저학년(1 ~ 4학년)의 경우 SFO라는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는데, 돌봄교실의 역할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으로 유학 온 노르웨이 학생들이 가장 한국 교육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한국 교육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은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으나, 한국은 대학에서도 학과 성적이나 어학 등에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노르웨이 학생들은 대부분 지겨워하면서 공부하는 편으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나,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평등사회로, 학생과 교수가 친구처럼 지내지만 한국에서는 계급사회처럼 권위적인 사회라는 것에 대해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함

-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인지?

⇒ 경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지는 않으나, 항상 교육에 대해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가

대학까지 무료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음.

- 모든 교육이 무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 예를 들어 방과 후 별도 시설을 다니는 학생은 돈을 내는데, 수입이 많은 부모는 적정한 금액을 내고, 저소득층 경우는 비율에 따라 돈을 적게 내고 있음

□ 관련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단체 사진]

2 스웨덴 교육전문가 초청 간담

▷ 간담일시 : 2019. 6. 25.(화) 09:00 ~ 10:00
▷ 강 연 자 : 스웨덴 한글학교 신미성 이사장
▷ 간담장소 : 스웨덴 Quality Globe 2층 회의실

□ 간담 주제

- 스웨덴을 통해 바라본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교육 행복과 가치
  - 스웨덴은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가 잘 갖춰진 나라로, 가장 큰 이유는 통합된 유아교육 정책과 체계적인 보육 지원임
  - 또한 스웨덴에서는 학생의 경쟁에 따른 학습 부담, 부모의 자녀 교육에 따른 근심과 고민은 찾아볼 수 없음
  -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스웨덴의 유아·교육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함.

□ 교육전문가 소개

- 강사명 : 신미성
- 강사이력
  - 스웨덴 15년째 거주, 한국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 스웨덴 교육학 전공, 학교 사서교사와 방과 후 교사 겸임 재직 중
  - 현 스웨덴 한글학교 이사장

□ 연수 내용

-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코뮨이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어, 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 상태임

  - 교육분야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목표 및 가이드라인만 안내하고 세부적인 교육정책 추진 및 행정관리는 코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실질적인 교육과정, 방법 및 평가 등은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의 예산, 인사 및 운영 등 학교 제반적인 사항은 코뮨에서 채용*한 학교장에게 일임되어 있는 구조임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교장을 채용함

- 공·사립별, 학교별 다양한 교육방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담임교사가 국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 가르치는 형태도 존재함

- 스웨덴의 학교 교육은 상호 간의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음. 학부모들은 학교장, 교사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가 없고, 학생들은 믿고 따르는 상호 간의 신뢰 속에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있음

- 스웨덴은 부모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어, 1살부터 공·사립 구분 없이 집과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는데, 공·사립 모두 정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고, 유치원은 배우는 학습이 아닌 원아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원아들이 쉽게 적응하고 항상 즐겁게 다니고 있음

- 유치원 평가는 한국처럼 서류 검토, 현장 방문 확인 등의 상세한 평가가 아닌 학부모에게 단순한 만족도 조사(9가지 정도의 쉬운 항목) 만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질의답변

- 스웨덴의 토요한글 학교 운영은?

⇒ 현재 학생 수 110명, 교사는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의 30%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 5개 반과 성인 5개 반을 초·중·고급으로 구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학교에 보건교사, 심리상담사 및 피지컬테라피 등 학생 상담이나 건강을 위해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 스웨덴도 보건교사 등은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의 경우 방과 후 교사 등이 담임교사 업무를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병행하여 상담해주고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대우는 일반교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 방과 후 교사와 일반교사는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일반적인 스웨덴 가정의 자녀는 몇 명 정도이며,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는지?

⇒ 한 가정당 최소 2명 이상 자녀가 있으며, 스웨덴은 대부분 맞벌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원을 보내고 있음

□ 관련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현장 사진]



[간담회 단체 사진]

Ⅵ 국외 연수 활동(시설견학)

1 헬싱키 시립박물관 어린이 마을

▷ 방문일시 : 2019. 6. 27.(목) 10:00 ~ 11:00
▷ 안 내 자 : 헬싱키 김제인 가이드
▷ 주　　소 : Aleksanterinkatu 16-18, 00170 Helsingki
▷ 홈페이지 : http://helsinginkaupunginmuseo.fi

□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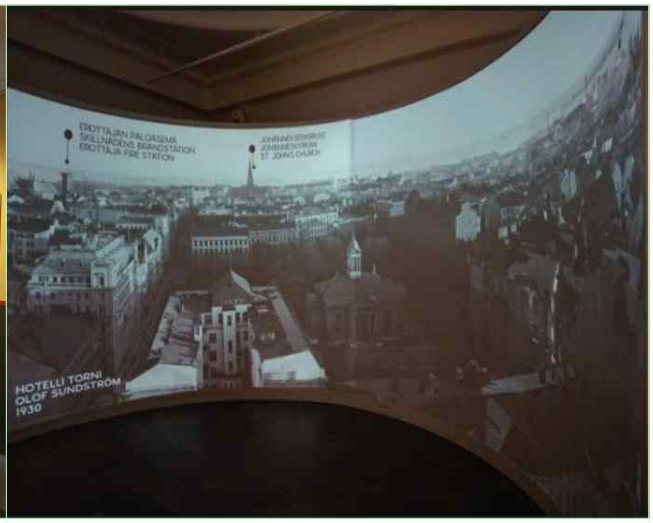
- 헬싱키의 역사 및 핀란드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헬싱키 시립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지역 역사 문화와 연계한 교육박물관 건립 방안 모색

□ 견학 내용

- 헬싱키 시립박물관은 1757년에 지어진 헬싱키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써, 헬싱키 대성당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음
- 박물관 내부에는 1930년에 촬영한 헬싱키 도심 사진을 전시하여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역사적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헬싱키 역사적 사진 전시]



[1930년대 헬싱키 모습]

- 또한, 핀란드인들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산속 통나무집이나, 옛 추억의 교실 및 갖가지 소품을 전시하여 핀란드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엿볼 수 있음



[박물관 내부 옛 교실 풍경]



[산속 통나무 집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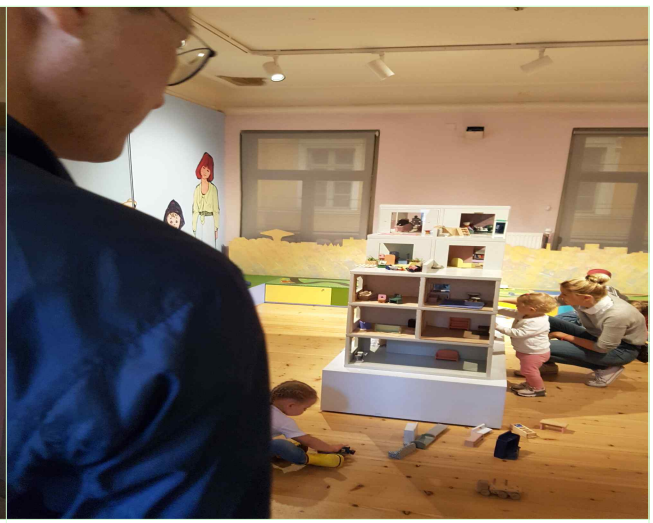
- 어린이 마을에는 다양한 체험 시설이 있는데, 핀란드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 듯한 1970년대 가전제품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이 있고, 마차나 배에 올라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과 90년대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흑백사진과 장난감이 가득한

대형 놀이방이 있어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거나 어른들의 휴식 공간이 있음

- 유물이 전시되는 딱딱한 곳이 아니라, 만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과거 핀란드 학교 모습은 물론 어린이들의 생활상까지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임



[다양한 사진 및 소품]



[대형 놀이방]

□ 시사점

- 체험중심의 교육박물관은 이미 국내에는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전북교육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역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북 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짐

Ⅶ 총평 [연수 결과 정책 추진 방향]

학생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 교육복지를 하나의 종합 서비스로 인식하여 전북 학생들에게 타·시도와 다른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복지 서비스 발굴 노력 필요

▸추진 부서 : 교육혁신과,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자치 활성화

- 학교의 의사결정과정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소통의 직장 분위기 조성
-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확대
-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추진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예산과

기초교육을 중점으로 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 학습부진아 학생만 지도·관리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방식 도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가 책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확대, 수업권 보장 및 교원업무경감 필요

▸추진 부서 : 학교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수원

아이들의 체험중심 교육 박물관 건립 노력

- 전북교육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며, 아이들이 역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도내 교육박물관 조성 위한 예산 지원

▸추진 부서 : 총무과

Ⅷ 연수후기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

백문이 불여일견,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우리 교육위원회는 선진 교육현장을 찾아 지난 6월 20일 국외정책연수를 출발해 7박 8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 나라의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다. 연수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여운이 남아 마무리하는 심정에서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느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복지가 아닌 평등이 발달한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 박사과정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 나라는 모두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도중에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최근 고교 무상교육까지 왔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다. 무상교육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서부터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무상교육에 대한 각 나라의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매우 궁금했고 그 답은 첫 기착지였던 노르웨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복지 혜택이 많은 만큼 국민들이 내는 세금 역시 상당했다. 한국에서 3, 4천만 원대의 SUV 차량이 노르웨이에서는 약 1억 원 정도 하고 이 금액 중 40%가 세금이다. 하지만 이 세금은 결국 본인들에게 제대로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기에 노르웨이 국민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또 복지가 발달한 만큼 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성차별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노르웨이에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교육 역시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로서 무상교육은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노르베르그 중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되었다.

▲주부라는 직업이 없는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맞벌이가 대부분으로 학교급식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주부라는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맞벌이 여성이 직장을 잃으면 한국처럼 경단녀가 되어 전업주부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직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보육정책 역시 맞벌이에 맞춰져 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생후 12개월부터 유치원에 보내며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이 대부분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방과후 수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교사 자격이나 대우가 일반교사와 동일하고 교과수업 외에 많은 부분을 방과후 교사가 담당하거나 일반교사와 협업하는 등 방과후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집중지도, 특별지도하는 핀란드

국외연수 마지막 국가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유럽에도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평가 받는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시작된 이래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의 강점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다. 하지만 핀란드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우문현답에 가까웠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성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적다. 특히, 핀란드는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부족한 학생에 대해 더 많은 투자(일반지도→집중지도→특별지도)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동떨어진 현실이 생소하게만 느껴지면서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어떤 나라의 학생들이 더 행복할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쉽지 않은 여정임에도 열과 성의로 함께 해준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생한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거듭 표하는 바이다.

Ⅸ 참고자료

□ 연수 관련 5분 발언[김종식 의원]

2019. 7. 16.(화), 제365회 제1차 본회의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연계한 교육박물관 건립 촉구]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국외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하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느끼고 배운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의원은 연수 마지막 국가였던 핀란드의 헬싱키 시립박물관 사례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헬싱키 시립박물관은 1757년에 지어진 헬싱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그러한 역사를 가진 건물에 시립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심은 2016년에 문을 연 시립박물관 어린이 마을(Children`s Town)이었는데,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교육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물이 전시되는 딱딱한 곳이 아니라, 만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핀란드 학교 모습은 물론 어린이들의 생활상까지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중심의 교육박물관이 우리 전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에는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 교육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역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북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945년에 개교한 군산초등학교가 올해 3월 구도심 중앙동에서 신도심 지곡동으로 이전 신설하였습니다. 원래 군산초가 있던 자리는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와 매우 인접한 곳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국비 208억원 등 총 41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한다면 군산초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24학급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주변 근대역사문화 유산과 연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박물관이 군산초 부지에 건립된다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산초 옛 부지를 활용한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 또한 지역 근대역사문화와 교육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교육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교육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면, 그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세상보다 더욱 재밌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 연수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전북도의회 교육위, "선진교육 복지의 현장에 첫 발을 내딛다"

-7박 9일 국외정책 연수 시작
-첫 일정으로 노르웨이 교육방식 강연 청취
(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뉴스일자 : 2019-06-21 17:42:20



전북도의회 교육위, 국외정책 연수 시작.(사진제공=전북도의회)

20일 7박 9일 일정으로 국외정책연수를 떠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착 첫날 첫 일정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Hanna Flood(25세, President of ANSA 2018)는 "노르웨이 교육방식의 글로벌 경쟁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시간 동안 강연과 함께 교육위 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학교교육은 독립성과 사회성을 강조" 한다고 밝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를 통해 암기하는 교육방식보다 사회참여를 통해 성숙해지는 인간관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국가적 특성상 최근 해외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인은 해외 유학생들의 대표로서 국가의 해외유학정책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최영규 위원장)와 노르웨이의 경우 대학까지 무상교육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해외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배경(진형석 의원),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무상교육이지만 방과후수업이나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학부모 부담정도(김희수 의원) 등 장시간 비행에도 아랑곳 않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강연자로 나선 Hanna Flood 위원장이 속한ANSA(Association of Norwegian Students Abroad)는 노르웨이 교육부 산하 자율기구로 노르웨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해외로 유학하는 자국민을 지원하

는 기구로 해외유학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서도연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9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일요서울

전북도의회 교육위, 노르웨이 노르베르그 중학교 방문

고봉석 기자 | 승인 2019.06.24 17:36

노르웨이, 학업 부담 적어 자녀양육 큰 도움



[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차 일정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시 북부에 소재한 노르베르그 중학교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2일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교육위 의원들은 학교관계자로부터 "노르웨이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학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받았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노트북 등 교육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무상지원하고, 정부가 '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달에 약 2~3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학교의 저학년의 경우 SFO라 불리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클럽스포츠 등 예체능을 주를 이룬다.

노르베르그 중학교 관계자는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다"며"하지만,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할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복지는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다시 대학에 진학해 공부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 노르웨이인에 약 40%가 학사 학위 2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봉석 기자

도전하는 전북, 혁신과 열정으로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교육위 스웨덴 학교현장 방문 간담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26 18:36



국외정책연수 중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4일 공식 방문지인 스웨덴 스톡홀름시 소피아학교를 찾아 공식 방문하고 25일은 스웨덴 교육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24일 교육위가 찾은 소피아학교는 1910년에 지어졌으며 학생은 약 800명 정도로 1학년에서 9학년까지 있는 큰 학교에 속한다.

방문 당일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학교장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스웨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대학까지 교육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스웨덴은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맞벌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부라는 직업은 없다.

소피아학교 관계자는 교육목표는 자립과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웨덴 교육목표로 교육열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한국과 같이 경쟁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웨덴 학교의 장은 지방정부가 채용하고 반드시 교사나 교육경력이 없어도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채용 등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고 학교와 교사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 학교자치가 활성화됐다.

소피아학교 교장은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교장 사이에 신뢰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전북이 처음으로 학교자치를 시작하는데 스웨덴 학교의 모습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밝히고 "결국 자치의 기본은 구성원간의 믿음과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북 학교자치 활성화와 관련해 스웨덴 학교모델을 참고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날 25일은 스웨덴 거주 15년째로 한국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스웨덴에 와서는 교육학을 전공한 신미성 한글학교 이사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신 이사장은 현재 사서교사와 방과후 교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한 때 유치원 교사로도 재직하기도 해 스웨덴 교육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신 이사장은 "스웨덴은 생후 12개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는데, 보육정책은 오로지 맞벌이 부부에 맞춰져 있다"면서 "한국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사립 유치원만 있으며, 유아교육은 대부분 놀이중심으로 되어 있어 유아들이 쉽게 적응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웨덴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통해 실시하는데, 설문내용 역시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간략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이사장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한편 한국의 교육현실과 스웨덴 교육을 비교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교환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한국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처럼 통합된 유아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적이고 통합된 유아교육 정책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조건이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방과후 교사의 자격과 처우가 일반교사와 같다는 것에 많이 놀랍다"면서 "스포츠와 예술, 창의력 위주의 방과후수업이 활성화된 스웨덴 교육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한국 학생들과 스웨덴 학생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답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학생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끝으로 스웨덴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곧 바로 핀란드로 향했다.

이방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방희 기자

전북연합신문

인쇄하기 창닫기

도의회 교육위, 핀란드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해답 찾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핀란드 교육, 대학원과정까지 프리에듀

2019년 06월 27일 (목) 18:03:36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외정책연수 마지막 기착지인 핀란드에 도착하고, 투술라 시청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살로메 투술라 부시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교육국 대외협력담당자인 까띠에씨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투술라 시 관계자는 "3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융·복합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평가방법 변화와 융·복합 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교사 상호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튜터 티처(tutor teacher)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융·복합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 역량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일 동안의 국외정책연수 방문지역이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대학은 물론 석·박사과정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투술라 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견해를 밝혔다. 박희자(비례) 의원은 교육과정 개편과정에 발생한 어려움이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묻고, "이민자들에게 언어를 먼저 교육한 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튜터 티처 제도가 인상적"이라면서 "사실, 변화의 속도

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지만 교육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투술라 시 학생 평가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역시 최근 많이 도입된 방식"이라 밝히고, "이러한 방식은 평가에 있어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와 학력수준을 저하 문제가 관건"이라며 투술라 시의 견해를 물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핀란드의 진로직업 체험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는 중학교 2·3학년 시기 교과과정에 2주간 직업 체험이 포함된 것과 15세 이후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지방정부가 고용주에게 300유로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핀란드 교육현장을 방문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처럼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전북연합신문(http://www.jbyonha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